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경험하는 초임교사의 어려움 및
지원에 대한 요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이 재 순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경험하는 초임교사의 어려움 및
지원에 대한 요구

권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이 재 순

인 준 서

이재순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어린이집 초임교사가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요구는 어떠한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경험하는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2)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초임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지원 요구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대상은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초임교사 8명이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3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2월 18일까지 초임교사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4회, 1회 40분-1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또한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참여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기간동안 수집된 면담 전사본과 현장노트를 토대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분류, 범주화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을 분석해 본 결과, 어린이집 생활을 울음으로 시작하는 영아와 동시다발적인 상황 전개와 반복되는 생활지도 및 부모(보호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자신감

없는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분류되었다. 초임교사들은 낮은 환경과 낮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보호자와의 분리불안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울음으로 보내는 영아들의 행동에 적절한 반응과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몰라 어려워하였다. 또한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보호자와 영아가 함께 교실 안에 머물며 놀이가 진행되는데 그 자체가 초임교사에게 부담감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반복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영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였다.

둘째,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임교사들은 가정에서의 지도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얼마 같은 교사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시도하였다. 또한 선배교사들의 조언과 관련 서적 연구를 통해 보호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통해 보호자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은 선배교사들로부터 영아에 대한 교사의 일관된 태도 보이기와 모델링을 제안 받아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고 하면서 선배교사들의 세심한 지도와 조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의 부모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사가 먼저 부모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6
1) 적응의 개념	6
2)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
3) 어린이집 초기 적응프로그램	12
2. 초임교사	14
1) 초임교사의 특성	14
2) 초임교사의 어려움	18
III. 연구방법	21
1. 연구 참여자	21
2. 자료 수집	25
1) 예비연구	25
2) 본 연구	26
3. 자료 분석	28

IV. 연구결과 및 해석	30
1.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경험하는 초임교사의 어려움	30
1) 울음으로 시작하는 영아의 첫 사회생활	30
2) 동시다발적인 상황전개와 반복되는 생활지도	34
3) 부모(보호자)와 같은 공간에서의 생활과 소통	38
2.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초임교사의 지원 요구	43
1) 영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받기	43
2) 초기 적응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45
3) 동료교사의 조언과 모델링	48
V. 결론 및 논의	51
1. 요약 및 논의	51
2.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2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고전적인 가정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영유아기에 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 외에도 사회적 기관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2013)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수는 2000년 686,000명에서 2009년 12월 1,175,049명으로 약 2배정도가 증가하였고, 2013년 3월 기준 1,487,361명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전체 만 2세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수는 670,375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수가 증가했고 특히 만 2세 이하 영아의 수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을 볼 때, 영아가 가정 외의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아들이 어린 시기부터 보호자와 격리되는 경험과 보호자가 아닌 타인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나가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영아가 가정을 떠나 어린이집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경우 영아는 집단생활을 즐기게 되고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다. 긍정적인 적응은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후 경험하게 되는 여러 집단에서의 안정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으므로 (심현정, 2003)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이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적응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선주(2008)은 적응프

로그래에 참여한 영아들이 참여하지 않은 영아들에 비해 적응행동이 증가하였으며, 친사회성·긍정적 정서·또래간의 적응·하루일과의 적응은 사후 전체 적응행동 점수가 증가함으로써 적응프로그램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영아가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영아보다 적응을 더 잘하며, 여아가 남아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이은경, 2005)도 이루어져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 영아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지애(2013)는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중 다양한 놀이 활동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교사-영아간의 상호작용 중 교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언어적 모델링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김영옥(2003)은 영아기의 발달 특성상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시기임을 고려해 볼 때 교사와의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의 초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와의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아 초기 적응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영아반 교사는 영아가 보호자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보호자를 대신해 영아를 보호하고 상호작용하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지해 주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이경하, 임영심, 2006). 뿐만 아니라 영아의 초기 적응에서 교사는 지지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영아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류경, 2000)에 안정적인 영아-교사간의 관계형성은 영아의 발달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김해숙, 2010).

이처럼 영아보육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아반 교사는 초임교사로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교사로서의 초기 적응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사로서의 교직 초기의 경험은 교사 발달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박동준, 1992). 즉 초임교사 시기는 앞으로 어떤 교사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이며(이지현, 2002), 교사가 평생 동안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교직입문 시기동안 획득하게 하고, 이러한 입문기간은 교사의 전 생애동안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오현미, 2009). 그러므로 초임교사들이 어떻게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면서 적응해 가는가 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이완희, 박찬옥, 2005; 조혜진, 2007).

특히 영아반을 담당하게 되는 초임교사일 경우 양육 경험이 없어 보살핌에 대한 역할 혼돈을 겪고 영아 보육에 대한 미숙함으로 교직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양지영, 2007). 이완희(2004)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반 초임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의 혼동과 불일치의 혼돈으로 갈등을 겪으며 혼돈스러워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것은 영아에게는 보살핌이 절대적인데서 오는 교사 역할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초임교사들 스스로가 보살핌의 역할을 하찮은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보육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초임교사들일수록 영아반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실제로 영아반 초임교사로서 보육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다양하다. 초임교사는 어린이집 근무와 동시에 학급운영, 영아 행동지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되지만 교사의 역할에 대한 혼돈과 갈등, 정신적·육체적 피로, 영아반 교사로서의 정체성 미 확립, 학생으로서의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의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기도 한다(양지영, 2007). 또한 영아의 실질적인 발달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영아의 기본적 욕구지원 등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현, 2012). 이러한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살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찾거나

(양지영, 2007) 보살핌을 실천하는 영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이완희, 박찬희, 2005).

영아반 교사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시대적 요구로 영아반 교사와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과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김정원 외, 2002, 김혜석, 2002; 신희연, 2005)와 교사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김숙령, 1996; 곽승주, 2003; 임옥희, 2006), 영아반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이완희, 2004)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임교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거나 초임교사들이 영아반을 경험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초임교사의 전반적인 적응과 성장의 과정을 그려 그들이 초임교사로서 어떻게 어린이집에 적응해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나, 초임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세부적인 교육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한 초임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임교사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초임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임교사들이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초임교사들의 지원 요구는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영아반 초임교사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방안의 방향을 제시하여 초임교사가 영아들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돕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경험하는 초임교사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 2)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초임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지원 욕구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1) 적응의 개념

적응이란 자아의 필요뿐만 아니라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적응에 대한 정의는 학문영역에 따라 생물학적 차원, 심리학적 차원, 사회학적 차원에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첫째, 적응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생물학 분야에서는 적응을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조건에서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 정의하였다(김귀옥, 2000).

둘째, 심리학적 차원에서 적응이란 각 개인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있는 관계를 이루기 위한 기능적이거나 학습화된 변화를 강조한다(Lazarus, 1976).

셋째, 사회학적인 차원에서의 적응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기대, 요구 등에 대해 개인의 행동을 맞추어 가는 것으로 개인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일컫는다(변시민, 1988; 윤인진, 2000).

장승임(1983)은 적응이란 자기의 욕구와 환경과의 사이에서 조화를 구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 김동배와 권중돈(2005)은 개인의 필요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요구가 모두 충족되고 있거나 개인과 객관적인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 또는 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적응이라 하였다. 허정숙(2008)은 적응이란 단순하게 개인이 환경

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상호작용이며, 능동적으로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적응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문 분야에 따라 개인이 단순하게 환경에 순응하는 과정에서부터 보다 능동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바뀌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Lazarus(1976)에 의하면 건강한 적응에는 외적 적응과 내적 적응이 있다. 외적 적응이란 사회적 문화적 기준을 지키고 타인과 협조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인간관계에서의 안정을 찾는 것이고, 내적 적응이란 주관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신적 세계의 안정을 찾아 환경에 맞추는 것이다. 건강한 적응이 시사하는 바는 기존의 집단이나 환경에 개인이 무조건적으로 맞추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 환경을 변화시켜, 환경을 개인에게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Hinshaw(1942)는 적응은 개인적·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며 한 개인의 적응은 자신이 속해있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특정한 준거에 근거를 두고 어떤 개인의 규범이나 표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유아의 적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현주(2011)에서 적응을 개인이 환경 속에서 만족스럽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상태라고 정의하거나, 김영옥(2000)은 개인이 능동적으로 환경에 참여하고 적응하는 것, 더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만족스러운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영유아가 주어진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에 맞게 자신의 습성이나 생활방식을 맞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강정원, 2002).

특히, 영아의 어린이집에 대한 초기 부적응의 경험은 한 번만의 경험으로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음(이미희, 2010)을 볼 때 영아가 생애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던 영아가 보호자와 분리되어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환경에 처음으로 적응해나가는 일은 어린 영아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즉, 영아는 새로운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자신을 조절해야 하지만 환경 구성 요인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에 적절하게 자신을 조절하여 적응해나가야 하는 일은 영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유현숙, 2006). 즉, 영아들은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교사와 또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 등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면서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해야가야 한다. 그러나 영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영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개별적인 요인

영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 그러나 영아들이 환경적인 요구와 자원의 측면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서조절과 문제해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구수연, 2005).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영아는 지각, 학습, 기억과 같은 인지적인 전략들 뿐 아니라 분노와 화, 불안, 수치심, 부끄러움과 같은 정서들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적응에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적

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질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김난영, 2000; 남주현, 2003; 박정미, 2001; 양숙경, 2010; 원영미, 1990; 이지애, 2013) 있다.

먼저 교사가 인식한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극에 빨리 접근하고, 좋은 기분을 나타내고, 한 활동을 오래 지속하는 영아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낯선 환경에 놓여졌을 때 기질이 까다로운 영아가 순한 영아에 비해 낯선 환경에서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김난영, 2000; 허정숙, 2008)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까다로운 기질임을 알 수 있다(전현주, 2011). 특히, 영아의 기질 하위 변인 중 활동수준은 영아의 적응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반응역과 지구성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애, 2013).

그리고 성별 차이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초기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고(구수연, 2005), 여아가 어린이집의 일과 적응에 관련되어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선, 1995).

반면에 남주현(2003)과 양숙경(2010)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있어 여아와 남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기질이나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질이 까다로운 영아가 순한 영아에 비해 낯선 환경에서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어린이집의 일과 적응에 관련되어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있어 여아와 남아 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 부모의 요인

영아가 태어나 처음 성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영아-부모와의 관계는 영아가 성장하면서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영아의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어머니의 기질과 같은 어머니의 특성과 영유아의 기관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들이 있다(원영미, 1990; 이정란, 1998; 김영옥, 2003; 이희영, 2001; 장혜정, 2003).

이희영(2001)은 어머니와 영아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어린이집 적응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장혜정(2003)은 어머니가 영아의 사회적 능력과 발달을 중요시하고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할 때 영아가 어린이집에 보다 잘 적응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본 연구들은 그 결과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정란(1998)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통제적일 때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장혜정(2003)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일 때보다 자율적일 때, 애정적일 때보다 거부적일 때 영아가 더 적응을 잘한다는 보고하여 서로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의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으나(이희영, 2001),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안정성이 어린이집의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는 남아만 일부 관련이 있을 뿐 여아 어머니의 애착정도는 어린이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김영옥, 2003)도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원영미, 1990)도 있지만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하위 변인 중에서 교수적 양육

행동과 사회적 양육행동은 영아의 적응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이지애, 2013)도 이루어졌다. 이렇듯 부모의 특성과 자녀와의 관계는 영아의 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사의 요인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아가 늘어나면서 부모 외의 양육자로서의 교사-영아의 관계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김영옥(2003)은 교사와 영아의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적응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 영아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교사의 민감성을 강조한 연구를 살펴보면 Ainsworth와 Bell(1970)은 영아의 요구에 대해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영아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며 영아가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게 한다고 하였다(심현정, 2002). 특히, 교사의 언어적 모델링, 긍정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교사의 태도 및 적극적인 활동 참여는 영아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애, 2013). 반면에 교사와 갈등을 많이 경험한 영아는 분노와 불안감,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며,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김인아, 2004). 따라서 교사는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교사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격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한 영아는 교실의 사회적 규칙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사의 제안을 수용하는데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정은숙, 2010). 이처럼 교사는 물리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영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독립적

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이며(이은경, 2006) 영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안아주거나 다른 놀이로 관심을 쏟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영아의 적응을 돕는 역할자이다(구수연, 2005).

신지연(2004)은 만 2세 영아의 사회성은 부모보다 교사와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교사가 민감하고 반응적이면,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은주(2010)는 영아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교사와의 관계이며 교사와의 안정적 관계형성은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성공적인 첫 걸음을 떼게 한다. 더구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교사-영아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양은주, 2010; 박정화, 2014; 강경화, 2013; 이화순, 2010; 양숙경, 2010; 안명희, 김명희, 2006; 이명주, 2010)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3) 어린이집 초기 적응프로그램

영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초기 적응프로그램이다. 이렇듯 초기 적응프로그램이란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 겪게 되는 정서적 불안을 감소시켜 보호자와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인 어린이집에 안정적이며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체계적인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초기 적응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이다(이선주, 2008).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초기 적응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박성미 외, 1996; 신현정, 2003).

현재 어린이집에서 실시되는 초기 적응프로그램은 대부분 보건복지부(1997)에서 발간한 ‘초기 적응지도’를 따르고 있다. ‘초기 적응지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환경에 대한 친숙기, 교사와의 친밀기, 보호자와의 분리기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적응지도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 1단계는 ‘어린이집 환경에 대한 친숙기’로 이 기간 동안 보호자와 함께 하루 2시간 정도 머무르며 어린이집의 환경을 함께 탐색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영아들은 실내·외 자유놀이, 화장실 가기, 간식 먹기 등을 경험한다.

제 2단계는 ‘교사와의 친밀기’로 이 기간 동안 보호자와 함께 하루 3시간정도 머무르며 일과리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점심식사나 낮잠을 자보는 경험을 해 보도록 하고 있다.

제 3단계에서는 ‘보호자와의 분리기’로 보호자는 영아가 같이 등원하여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경험을 갖고 점차 분리시간을 늘려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김혜경 외(2002)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프로그램은 처음 2, 3일간은 부모와 같이 등원하여 1시간부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다가 3, 4일경에는 부모와 짧은 시간동안 헤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 후 5, 6일경에는 점심식사를 하고 귀가하도록 하여 영아가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을 점차로 늘려 나가는 것이 좋으며, 특히 영아의 적응상태에 따라 적응시간을 조절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영아의 초기 적응에 대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14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안내(40인 이상)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는 모두 6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2영역 운영관리 중 대 2-2 원아에 대한 관리 지표에 ‘신입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에 대한 항목이 있다. 영아는 어린이집에 처음 오게 되면서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보호자와의 분리 등으로 긴

장하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는 영아 뿐 아니라 부모 또한 새로운 환경에 자녀를 보내게 됨으로써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신입원아와 부모를 위한 적응과정을 통해 영아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부모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신입원아 적응과정을 최소 1주일 이상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입원아의 적응과정에서 영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영아의 연령, 개인적인 기질, 이전의 어린이집 경험, 부모의 직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질 높은 보육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이혜숙, 2007).

이렇듯 어린이집 초기 적응프로그램은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 겪게 되는 정서적 불안을 감소시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보호자와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이며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2. 초임교사

1) 초임교사의 특성

초임교사는 교직 직전 교육기관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마치고 교직에 입문하게 된다. 초임교사 시기는 새로운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교직 첫 해는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며 교사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초임시기를 설명한 학자들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Katz(1985)는 유아교사는 생존기, 강화기, 갱신기, 성숙기의 4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보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 등과 교육에 대한 요구, 적절한 교육시간과 장소를 제안하였다.

초임교사는 최초 교직생활 1년에 해당하는 ‘생존기’ 시기에 해당된다. 이때는 교육현장에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원활히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생존기 교사들은 지원, 이해, 격려, 확신, 위로 등 심리적인 안정 뿐 아니라 교실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요하며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원장, 선배교사 혹은 프로그램 보조자들을 필요로 한다(홍석흠, 2004).

Burden(1982, 1983)은 교사발달단계를 생존단계, 적응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하고 초임교사는 교직경력이 3년 이하의 교사로 초임교사의 교직 적응양상은 생존과 적응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교직 첫 해의 생존단계에서 교사들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교과중심적인 수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며, 학습 분위기 유지, 교과목 지도, 가르칠 내용의 숙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문적 통찰력은 거의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 단계인 적응단계는 2년 내지 4년의 교직경력에 해당하는 시기로 교사들은 교사활동에 대한 지식 및 교수환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서 교직관도 변화하여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통찰력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경험이 쌓임에 따라 수업 또한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확신감, 안정감, 성숙감을 가지고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시도를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이지영 외, 2000).

Fuller(1969)는 교사 발달을 교사 관심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단계는 교직 이전 단계, 2단계 초기 교직 단계, 3단계 후기 교직 단계로 나누었다. 이중 초임교사는 2단계인 ‘초기 교직 단계’에 해당되며 교사는 교사 자신의 자아, 새로운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외적으로 교육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교육현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운영 및 상황적인 요인에 더 큰 관

심을 보이는 시기라고 설명하였다(최지현, 2012).

국내 연구에서는 박은혜(2009)가 초임교사의 교직 첫 해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박은혜(2009)는 기대 단계, 생존 단계, 좌절 및 갈등의 단계, 반성 및 회복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기대 단계’는 실습을 마치고 취직을 해서 학급을 맡기 직전까지의 시기이며 이 시기 교사들은 이상적으로 좋은 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생존 단계’는 처음으로 학급을 맡자마자 교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을 경력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행하게 되는 학기 초를 말하며 이 시기는 하루살이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좌절 및 갈등 단계’는 입문한 지 1~2개월이 지났을 때이며 초임교사는 교사가 되기 이전에 가졌던 이상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에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인 ‘반성 및 회복의 단계’는 한 학기가 지난 후 방학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현직 연수에 참여하고 다음 학기를 계획하고 동료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다음 학기를 위한 에너지가 재충전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학기 역시 생존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이상의 교사 발달 이론을 살펴보면 초임교사가 다음단계로 발전하고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료교사의 지원, 지도, 격려, 위로 등 심리적인 안정과 교실 현장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입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은혜, 배소연 외, 2002).

초임교사의 특성 중 사고과정을 살펴보면, 초임교사는 의사결정 과정, 사고의 레퍼토리, 지식의 통합, 학생 행동의 조정 등에서 경력교사와 사고의 차이를 보인다.(Carter & Richardson, 1989; Colton & Sparks-Lamger, 1993). 경력교사는 의사결정을 할 때 풍부한 도식을 가지고 있지만 초임교사의 도식은

덜 정교화 되고 수직적이다. 즉, 경력교사는 교수계획에서 영유아의 경험, 반응에 따라 교수계획을 수정하고, 영유아에게 알맞은 자료, 교수방법을 계획한다. 교수 활동에서도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가치 있는 학문적 활동시간을 극대화하고, 영유아에게 옹고 적절한 규칙과 일과를 설정·유지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또한 적절하게 환경을 구성하고, 적절한 주제를 제시하며, 영유아의 요구에 따르는 교수를 적용한다. 교수 이후에는 자신의 행동과 영유아 반응을 반성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Colton & Sparks-Lamger, 1993; Reynold, 1992, 서정립, 2005). 그러나 초임교사는 이러한 통합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전체 의사결정을 근거로 계획하고,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수법을 알지 못한다. 교수활동에서는 계획에 의해서만 수업을 진행하여 영유아의 흥미와 논의를 제한하고, 교육 내용과 교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고 자신의 실천에 대해서 반성하나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는다(박은혜 외, 2002). 의사결정과정에서 초임교사는 풍부한 도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를 위한 레퍼토리도 부족하다. 초임교사들의 사고를 위한 레퍼토리는 자신의 학교경험과 기억, 지식과 교육적 경험에 기초한 초보적인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력교사에 비하여 부족하다(Nichol, 1993).

이 외에도 초임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미숙하고 어려움을 갖는다. 영유아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경력교사는 활동 진행시 영유아의 행동적 단서를 인식하고, 영유아에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그들의 감정을 조절하는 실천적 전략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초임교사는 영유아의 위반행동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대개는 무시하고, 행동이 더욱 과격해지면 영유아를 비난하거나 또는 벌을 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영유아의 행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며 적절한 예방과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Carter & Richardson, 1989; 양지영, 200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초임교사는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성이 부족하며, 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는 적절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교수실행 과정에서도 융통성이 없으며 영유아의 경험이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의 평가에 있어서도 자신의 영유아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는 물론 피드백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2) 초임교사의 어려움

대부분의 초임교사는 임용 첫날부터 경력교사들과 똑같은 업무수행을 요청 받는다. 즉 초임교사들은 교수, 학급운영, 영유아의 동기유발, 부모와의 상호작용, 기타 행정업무 등 모든 업무에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지며, 이 모든 업무를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도록 기대되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초임교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교사로서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좌절감을 느낀다(이지현, 2002).

초임교사들이 교직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초임교사라는 자격지심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교수행위와 능력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부모,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고 어린이집 원장의 기대나 동료교사의 평가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학급운영 측면에서는 지식 및 교수기술의 부족, 수업자료의 부족,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문제행동 지도 등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행정업무나 행사준비, 차량지도, 청소 등의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경, 2000; 조운주, 최일선, 2004; 주연희, 유미림, 2003).

고주영(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첫째, 초임교사는 활동 진행에 있어서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현실과 유아교육 이론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특별활동, 프로젝트 활동과 생활주제 활동의 병행과 같은 수업활동 구조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며, 수업기술의 부족과 새로운 활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둘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학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동료교사, 원장, 영유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부족으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어려워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느꼈다.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신입이라는 위치 때문에 경력교사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것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진정으로 의사소통 할 대상이 없다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초임이라는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고 과중한 요구를 하거나 능력이상의 기대를 할 때, 원장과 이견갈등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영유아와의 관계에서는 문제행동을 가진 영유아를 지도하는데 어려워하고 심리적 상처를 주는 영유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학급관리에 있어서는 경험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통제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를 의식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장과 학부모의 간섭으로 교사의 소신대로 학급관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나타났다. 넷째, 업무에 있어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장시간 근무를 하며 이러한 근무시간의 연장은 교사의 여가생활에 피해를 주고 자기발전의 기회인 연구도 귀찮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임교사는 일처리가 미숙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을 연구한 조혜진(2007)은 영아반 초임교사들은 보살핌 위주의 교사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가르침과 보살핌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교사 양성

과정에서 유아중심의 교육과정과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 배웠기 때문에 영아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혼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양지영(2007)은 양육의 경험이 없이 보살핌에 대한 행위가 주가 되는 영아반 교사의 역할은 많은 갈등과 회의를 가지고 오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반 교사로서 보살핌에 대한 역할의 관심과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과정이 오게 된다고 하였다. 이환희, 박찬옥(2005)은 미혼 초임교사들은 혼돈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며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엄마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초임교사는 영유아의 행동지도, 수업활동 진행,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과도한 업무 등 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은 교직 첫 해의 어려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교사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로서의 자신감 및 노하우,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교직에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배움의 자세가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초임교사들이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학교를 졸업하고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영아반을 담당하게 된 초임교사 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과 경기 소재의 직장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중 1년차 초임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연구 참여 의뢰를 하여 이를 수락한 영아반 초임교사 8명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교사의 이름은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전공	근무기관 형태 (소재지)	현재 담당 연령	이전 영아담당 경험
A교사	26세	아동학	직장 어린이집 (서울 Y구)	만1세	대학 재학 중 만1세 실습경험 있음.
B교사	26세	아동학	직장 어린이집 (서울 Y구)	만2세	대학 재학 중 만2세 실습경험과 만1세 자원봉사 3개월간 경험 있음.
C교사	22세	영유아 보육학	직장 어린이집 (서울 M구)	만1세	없음.

D교사	23세	아동학	직장 어린이집 (서울 M구)	만2세	대학 재학 중 만2세 자원봉사 8개월간 경험 있음.
E교사	24세	가족 복지학	민간 어린이집 (서울 D구)	만2세	대학 재학 중 만2세 실습경험 있음.
F교사	24세	유아 교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S구)	만1세	없음.
G교사	23세	아동 보육학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S구)	만2세	대학 재학 중 만2세 실습경험 있음.
H교사	26세	유아 교육학	직장 어린이집 (경기 Y시)	만1세	대학 재학 중 만1세 자원봉사 6개월간 경험 있음.

(1) A교사

A교사는 서울 Y구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1세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26세의 미혼교사이다. 4년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였고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사회복지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어린이집에서 한 달간의 실습기간동안 만 1세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영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었다. 어린이집 입사 후 신입교사교육을 통해 초기 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 하였다.

(2) B교사

B교사는 서울 Y구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26세의 미혼교사이다. 4년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였고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사회복지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어린이집에서 한 달간의 실습기간동안 만 2세를 경험하고 3개월간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만 1

세를 경험한 적이 있다. 영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어린이집 입사 후 신입교사교육을 통해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아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3) C교사

C교사는 서울 M구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1세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22세의 미혼교사이다. 3년제 대학에서 영유아보육학을 전공하였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입사하기 전 영아에 대한 경험은 없고 유치원 교사이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다. 대학 재학 중 전공 관련 강의를 통해 영아의 발달특성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입사 후 신입교사교육을 통해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영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4) D교사

D교사는 서울 M구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23세의 미혼교사이다. 4년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였고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사회복지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어린이집에서 8개월간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만 2세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영아의 발달특성과 문제행동지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었다. 어린이집 입사 후 신입교사교육을 통해 초기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5) E교사

E교사는 서울 D구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24세 미혼교사이다. 4년제 대학에서 가족복지학을 전공하였고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사회복지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한 달간의 실습기간동안 만 2세를 경험한 적이 있다. 사전 교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이집의 상황으로 초기 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았다.

(6) F교사

F교사는 서울 S구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만 1세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24세 미혼교사이다. 3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였고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입사하기 전 영아에 대한 경험은 없으며 대학 재학 중 전공 관련 강의를 통해 영아의 발달특성과 문제행동 지도, 부모와의 의사소통기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었다. 어린이집 입사 후 초기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교사교육을 받았으나 이해가 부족하여 재교육 실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7) G 교사

G교사는 서울 S구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23세 미혼교사이다. 4년제 대학에서 아동보육학을 전공하였고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사회복지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어린이집에서 한 달간의 실습기간동안 만 2세를 경험한 적이 있고 영아의 발달특성에 대

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었다. 어린이집 입사 후 신입교사교육을 통해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8) H 교사

H교사는 경기도 Y시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1세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26세 미혼교사다. 3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였고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어린이집에서 6개월간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만 2세를 경험한 적이 있다. 영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기법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었다.

2. 자료 수집

1) 예비 연구

어린이집 영아반 초임교사들이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본 연구 참여자 중 A교사와 B교사를 대상으로 질문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연구 참여자의 영아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지, 초기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지,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예비조사

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본 조사에서 사용될 질문목록을 구성하는데 참고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어린이집 영아반 초임교사들이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지원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2013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2월 18일까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심층면담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연구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초기 적응프로그램 인식에 대한 질문목록을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참여자가 작성한 질문목록을 기초로 2013년 10월 28일부터 2014년 2월 18일까지 개별면담 형식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 1명당 4회로 이루어졌으며 구조적 형식과 비구조적 형식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1-2회 면담은 라포 형성에 목적을 두고 1회 당 30분에서 1시간씩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상황과 일정에 따라 어린이집 주변의 조용한 찻집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을 시작하기 전 참여자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일상적인 대화나 현재의 관심분야에 대한 질문들을 하며 편안한 면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자와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A, B교사의 경우는 연구자와 편안한 관계가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라포 형성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연구자와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들은 어린이집 일과 중 수시로 자연

스러운 대화를 통해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함께 근무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과는 일정을 조율하여 연구 참여자의 어린이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모든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중요한 내용이나 연구 참여자의 표정 등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약기 과정을 통해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1차, 2차 면담을 통해 수집된 면담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심층면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들을 생성하여 정리하였으며 3차, 4차 면담은 정리된 질문 목록에 따라 구조적 질문과 비구조적 질문을 혼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거나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어주고자 하였다. 3차, 4차의 면담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1회당 40분에서 50분정도씩 소요되었고, 면담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메모장에 메모하거나 대화내용을 저장하였고 면담을 마친 후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면담 자료를 전사하면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나 추가 질문이 필요할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휴대폰 인터넷 대화방(카카오톡)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2) 참여 관찰

본 연구의 보다 깊은 이해를 돕고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 참여자 중 현재 연구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A교사와 B교사의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관찰 기간은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2주간 주 1회, 1시간 30분씩 실시하였다. 참여관찰 기간은 현재 연구자가 근무 중인 어린이집의 5월 중간에 입학한

원아들의 적응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으로, 참여자의 담당학급이 만 1세와 만 2세반으로 달랐기 때문에 연구자가 교실을 번갈아 다니며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 내용은 보호자와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아의 울음과 행동, 문제행동 발생상황에서의 영아 행동과 교사 지도방법에 대해 각 2회씩 관찰하였다.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초임교사로서 영아반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직접 관찰하고 들을 수 있었으며 관찰내용은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3) 기타자료

본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영아 적응프로그램과 가정통신문, 영아 관찰일지, 신입원아 적응일지 등을 참고자료로 수집하였다.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적응과정은 계획에 따라 잘 실행되었는지, 영아의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영아 초기적응 운영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지원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수집한 자료를 전사한 후 각각의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모든 면담내용은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기록하였다.

참여관찰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약기한 것은 즉시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현장노트로 만들어 기록하였으며 연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 5명에게 면담내용을 확인하는 내부자 검증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 분석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났는지, 추가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또한 동료 질적 연구자 2인과 전문가 1인에게 분석의 기준과 범주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교사의 어려움’과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해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경험하는 초임교사의 어려움

1) 울음으로 시작하는 영아의 첫 사회생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아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적응 프로그램은 영아에게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환경에 첫 발을 내딛는 경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들은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및 보호자와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울음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아들의 행동 특성은 초임 교사에게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즉, 초임교사들은 낯선 환경과 사람에 대한 반응으로 보호자에게 매달려 우는 영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영아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미숙으로 적응 기간 내내 영아의 울음으로 시작하여 울음으로 끝나는 날도 있었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시작한지 2주차에 들어서는 월요일, 영아들이 보호자와 헤어져 오전일과부터 참여해 보는 날이다. 영아들은 보호자와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교사는 영아가 입고 온 옷의 색이나 모양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반갑게 등원인사를 나누었다. 교사를 보고 미소를 보이는 영아가 있는가 하면, 보호자의 목에 매달려 우는 영아도 있었다. 곧 보호자가 “엄마(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선생님이랑 친

구들이랑 잘 놓고 있어.” 라며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었다.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까딱거리며 인사를 하는 영아도 있었고, 교사의 품에 안긴 채 보호자에게 가려고 발버둥치거나 두 팔을 뻗어 보호자에게 가려는 몸짓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사가 교실로 안고 들어가자 교실 문 쪽을 바라보며 우는 영아, 교사의 옷을 잡아끌며 밖으로 나가자는 표시를 하면서 우는 영아도 있었다.

(2013년 5월 20일, 만1세반, A교사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아들은 적응 프로그램에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보자마자 울음으로 낯선 사람 즉, 교사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영아들은 울거나 몸부림치며 초임교사의 손길을 거부하고 보호자만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교사는 영아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들의 격렬한 거부행동은 초임교사에게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보였으며 실제로 교사들은 우는 영아들에 대한 대처가 적응과정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였다.

아침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는데 울면서 왔어요.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다보면 교실 한 쪽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서로 물고 꼬집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실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진행해 보지도 못하고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았어요.

(2013년 10월 29일, D교사 면담)

□□이는 어린이집 앞까지는 잘 오는데 어린이집을 보는 순간 운대요. 엄마랑 헤어지는걸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인사하려고 교실밖에 나갔다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더 크게 울어서 당황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2013년 11월 12일, C교사 면담)

어린이집에 들어올 때는 즐거운 얼굴로 왔다가 엄마랑 헤어질 때 자지러지듯이 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안아줘도 몸을 뒤로 젖히면서 발버둥 치니까 안

고 있기도 너무 힘들어서 떨어뜨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5분도 안 돼 금방 똑 그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이 지?’ 황당하면서도 안 울고 잘 놀아줘서 고맙기도 했어요.

(2013년 12월 7일, G교사 면담)

면담 사례에서와 같이 적응기간 내내 울면서 등원하는 영아도 있으며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 주변까지 잘 왔음에도 어린이집을 보는 순간이나 엄마와 헤어져야 하는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는 영아도 있다고 하였다. 영아의 울음의 시기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교사에게는 적응기간 동안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영아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초임교사들은 영아의 울음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우는 영아들을 안아주거나 업어주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흥미로운 놀잇감으로 관심을 전환시켜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아의 울음을 처음으로 접하는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의 울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잘 되지 않아 적절한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으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엄마랑 처음 떨어진 아이들이 적응기간 2주 내내 울더라고요, 그리고 약한 달까지는 거의 우는 것 같아요. 어떤 놀잇감을 건네 봐도 잘 그치지도 않고. 그래도 울 때마다 안아서 달래주고 눈물, 콧물 닦아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했더니 차츰 안정을 찾더라고요.

(2013년 11월 7일, H교사 면담)

영아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보려고 하거나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엄마아빠가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도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울었어요. 2주의 적응기간이 끝나고도 많이 울었는데, 3주째부터는 조금씩 ‘놀고 있으면 엄마아빠가 오시는구나’ 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영

아들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될 때까지는 거의 매일을 우니까 교실에서의 수업진행은 상상도 못하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살피고, 우는 아이 달래느라 정말 바빴어요.

(2013년 11월 5일, C교사 면담)

면담사례에서 보듯이 적용 프로그램 내내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우는 영아들을 안고 업고 달래는데 시간을 모두 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적용 기간 동안 친구들을 때리거나 꼬집고 무는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영아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였다.

아직 언어로 자기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연령이라서 놀이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친구들을 때리고 무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도 계속 물고 때리면 어째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서 우는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2013년 10월 31일, E교사 면담)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영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받아주고 거의 모든 부분을 부모가 대신 해 주다보니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와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옆의 친구들 꼬집고 때리고. 어린이집은 집과 달라서 한 교사가 영아 4~5명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영아들의 습관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 어려웠어요.

(2013년 11월 15일, B교사 면담)

가정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영아가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에서 또래들과 함께 처음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영아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욕구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노력하나, 영아의 행동은 바로 수정되지 않아 힘들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대응이 미숙하여 영아들이 또래에게 물리거나 맞은 것 같아 괴롭기도 하다고 하였다.

2) 동시다발적인 상황 전개와 반복적인 생활지도

영아반 교사는 가르치는 일과 보살피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며 영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더구나 영아들의 기질이나 발달 특성, 생활습관 등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영아들이 처음으로 함께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영아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데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아직 미흡하게 형성되어 있는 영아들의 생활지도는 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부분이고 영아들의 대부분이 단체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아반은 한 명의 교사가 5명 또는 7명의 영아와 함께 생활하고 생활지도를 해야 할 상황은 동시적으로 발생할 때가 많아 교사 역할이 익숙하지 않은 초임교사들에게 어려움의 요인이 되었다.

만 2세반 담임인 B교사는 출근하자마자 원장님, 교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중, 반 아이 중 하나인 규희(여, 가명)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규희(여, 가명)가 소매를 미처 올리지 못한 채 손을 씻으려고 하자 B교사는 “규희야~ 옷이 젖을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소매 좀 올려줄게.” 라고 말하며 규희(여, 가명)의 소매를 올려주었다. 규희(여, 가명)가 손 씻기를 막 끝내려고 할 즈음, 반 아이 중 하나인 지수(남, 가명)가 물을 마시러 정수기 앞으로 나왔다. B교사는 지수(남, 가

명)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지수(남, 가명)와 함께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데 지수(남, 가명)가 물 컵에 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수야~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순간, 지수(남, 가명)의 물컵이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물이 쏟아졌다. B교사는 화장실 벽장에서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았다. 그리고 물에 젖은 지수(남, 가명)의 옷을 갈아입힌 뒤 지수와 함께 교실로 들어갔다.

(2013년 5월 28일, 만 2세, B교사 참여관찰)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영아들 곁에 있어야 돼요.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유놀이시간에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눈 맞추고.. 그 뿐 아니라 물 한잔을 마실 때도 물 마시는 것, 컵 정리하는 것, 코를 닦을 때에는 코 닦는 것, 코 닦은 휴지 버리는 것, 양말 벗겨 주는 것 등등 계속 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해도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주어야 하고. 코를 닦을 수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잘 닦았는지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버렸는지, 양말을 벗어서 제자리에 정리했는지 확인을 해 주어야 하더라고요.

(2013년 10월 30일, A교사 면담)

관찰과 면담 사례에서 보듯이 영아반 교사들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따로 없이 하루 종일 영아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맞추어 신변처리를 해주고 생활지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영아들 또한 교실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미숙한 신체 조절로 인해 교사에게 많은 상황을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영아들의 생활지도로 여겨졌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실 내에서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하루의 대부분을 손 씻기, 양치질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지도하기, 코 닦기, 변기 사용하기 등 영아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을 처음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보니 식사시간에 밥도 먹여줘야 하고, 혼자 먹겠다는 아이들은 국을 쏟거나 반찬을 바닥에 다 흘리고 우유 컵을 엎지는 것도 다반사고.. 책상 바닥에 흘린 밥풀정리하고 나면 교실 저쪽에서는 놀잇감을 바닥으로 우르르 다 쏟고.. 개별로 양치질 도와주다 보면 다른 아이가 화장실 바닥에 물 쏟으면서 물놀이하고 있고.. 그러다가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굽신거리며 전화 드리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3년 11월 4일, F교사 면담)

영아들은 정말 순간적인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다른 친구들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할지 몰라 늘 긴장해야 했어요. 수시로 친구들의 얼굴을 때리는 아이가 있어서 교사 중 1명은 전담으로 맡아야 할 정도였어요.

(2013년 11월 27일, H교사 면담)

영아반 교사들은 매일 반복되는 배변, 식사, 낮잠 등의 일상생활지도를 하면서 유아들처럼 언어적으로 지도할 수 없고 영아 한명 한명을 도와주고 몸으로 시범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를 호소하였다. 즉, 그들은 영아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일어서고 앉기, 영아를 안아 올리거나 업기 등 대부분의 상황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수반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감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뿐 만 아니라 초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영아들의 행동 특성이나 움직임의 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덜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 교사들은 적응기간 내내 긴장하여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만2세 여자아이들의 경우 변기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혼자 변기에 앉는 것을 힘들어해서 속옷을 적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화장실

에 갈 때마다 안아서 번기에 앉혀주어야 하니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어요. 낮잠지도를 할 때에는 늦게까지 못 자거나 울면서 엄마를 찾는 영아들이 있을 때 안거나 업어서 재워야 했어요. 안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잠을 못자고 방해가 되니까.. 우는 영아를 안거나 업어서 재우다 보니 허리 뿐 아니라 온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일이 몸으로 직접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보니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2013년 11월 13일, D교사 면담)

만1세 영아들은 혼자서 밥을 먹기보다 다 먹여줘야 했어요. 집에서도 어른들이 다 떠먹여주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혼자 하려는 시도조차 안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특히 점심 먹을 때는 주변에 앉은 아이들 3,4명은 책임지고 먹여야 하니까 정작 내 밥은 먹을 수도 없고 먹었다 해도 정신없이 먹으니 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더구나 자리에 앉아서 안 먹는 애들은 계속 오라고 불러야 되고, 안 오면 데리고 와야 되고. 한 아이 데리고 간 사이 다른 아이들이 또 일어나 돌아다니고, 밥 먹은 자리는 밥 폭탄이고.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2013년 12월 4일, C교사 면담)

면담 사례에서 보듯이 영아반 교사는 혼자서 여러 명의 영아들을 담당하여 그들을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생활하던 영아를 어린이집의 단체 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해 먹이고 달래고 놀아주고 단체 생활의 규칙을 알려 주기 위해 몸으로 보여주면서 동분서주한다고 하였다. 즉, 초임교사들은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 동안 영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아의 특성상 언어적 지도가 아니라 항상 직접적인 행동과 움직임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곤으로 힘들어하였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교실 내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긴장으로 심리적으로도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부모(보호자)와 같은 공간에서의 생활과 소통

어린이집에서의 초기 적응프로그램 과정은 보호자가 영아와 함께 어린이집 교실에 머물며, 환경을 탐색하고 함께 놀이하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영아가 어린이집의 낯선 환경에 차츰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보호자와 함께 교실에서 하루의 일과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초임교사들에게는 부담이었고 어려움이었다고 하였다. 게다가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영아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데 필요한 보호자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 안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은 부모나 조부모를 비롯한 영아 보호자에게 어떻게 대화를 시도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누군가와 교실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더구나 그 누군가가 부모일 때는 더욱 그렇죠. 저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영아를 지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들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나?’ 하고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2013년 11월 26일, E교사 면담)

교실에서 한 영아가 할머니랑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보호자와 분리된 영아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영아를 두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니 할머니가 “애 혼자서 잘 노니까 좀 내버려두게 나가라고 그래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할머니에게 울며 안기니까 할머니가 “자꾸 이러면 애 버릇돼서 안돼요. 혼자 놀게 뉘야지.”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걸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하나 답답했어요.

(2013년 11월 26일, B교사 면담)

영아가 보호자와 분리를 시도한지 3일째정도 되는 날이었는데, 아빠가 그냥 말없이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불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애가 보면 또 올 텐데, 그냥 갔다올게요” 하시면서 현관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임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주임선생님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빠가 아이랑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면 아이가 불안해서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힘들텐데 그런 것들을 부모들은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 어려웠어요.

(2013년 12월 3일, F교사 면담)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B교사는 적응 기간 동안 교실에서 영아와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영아의 할머니가 영아와 교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교실을 나가려고 하여 할머니에게 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 오히려 자신이 교실에 없어야 더 잘 논다고 교사에게 충고하며 나무라시는 할머니로 인해 힘들었다고 하였다. F교사 또한 영아와 함께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아를 두고 말없이 나가려는 아빠의 행동이 영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였지만 이를 무시하는 아빠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몰라 힘들었다고 하였다.

초임교사들은 부모나 보호자들이 적응프로그램 과정에서 자신이 영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수업 시간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영아만 쳐다보고 있는 부모들을 볼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잘못된 상호작용이나 영아의 행동에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도 부모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제지할 수 없어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영아가 교사 또는 보호자와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 영아들은 교사 주변에 모여 있고 보호자들은 보호자들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아가 다가가 엄마 손을 이끌며 같이 놀이하자는 표현을 했는데 엄마가 “가서 선생님하고 놀아” 하면서 아이를 밀더라고요. 아이가 다시 한번 엄마 손을 잡아 끌었지만 엄마는 똑같이 반응했어요. 보호자에게 지금은 엄마랑 아이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혹시 엄마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말을 못했어요.

(2014년 1월 7일, H교사 면담)

영아들이 보호자와 분리되어 영아는 교실에서 교사와 놀이를 하고 보호자는 유희실(교실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었어요. 영아들이 좋아할만한 놀잇감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엄마가 들어와 아이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이들 놀이에 방해가 돼서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 때문에 놀이를 잘 하고 있던 아이들이 보호자를 찾아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미처 못 나간 아이들은 울고. 그 엄마가 진짜 원망스러웠어요. 놀이를 방해해서 그렇다고 말한 것인데 그걸 기분 나빠하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았고, 부모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기분이 안 나쁘면서 내 말을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014년 1월 9일, E교사 면담)

적응 기간 동안 부모들은 영아와 함께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놀이하고 간식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영아들이 어린이집은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교실에서 자신들끼리 수다를 떨거나 영아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영아의 적응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임교사는 그러한 부모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망설이게 된다

고 하였다. 즉, 초임교사들은 영아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데 필요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부모에게 전달하고 안내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효율적인 소통의 방법을 몰라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무척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 어떻게 대화를 시도해야 할지, 기분 나빠 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부모와 소통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초임교사들은 부모나 보호자들이 자신들을 전문가로서 대하지 않고 ‘베이비시터’ 정도로 대하거나 양육책임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부모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모님들이 교사를 ‘선생님’ 보다는 베이비시터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가끔 “언니~, 저기요~” 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신입이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기도 했고. “우리 애 아침 안 먹고 왔는데 간식 좀 많이 먹여줘요.” 라고 말하거나 “오는 길에 쉬를 해서 기저귀가 축축하니까 이것부터 좀 갈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등 가정에서 아이 돌보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2013년 11월 26일, A교사 면담)

적응 기간이 시작된 지 3일인가 지났을 때, 보호자와 놀이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물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할머니(아이 보호자)가 “애가 똥을 썼는데, 내가 기저귀를 안 챙겨 와서. 애 기저귀 좀 갈아줘요.” 하시면서 아이를 제 쪽으로 밀듯이 보내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기저귀 갈아주시라는 말은 못하겠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 아이를 교실로 데리고 들어오려는데 아이가 울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저귀 갈고 다시 오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울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애 하나 어떻게 못하냐고, 기저귀 직접 갈 테니 기저귀 하나 갖다달라고 하셨어요. 기저귀를 갖다드리고 잠시 서 있었더니 할머니가

처리한 기저귀를 내미시며 “이것 좀 받아 버려요.” 하셨어요. 순간 황당하고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랑 할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2013년 11월 28일, G교사 면담)

초임교사들은 스스로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부모와 접촉하여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적응 기간 동안 내내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실수나 서투른 행동이 부모들에게 보여 질까봐 진전공공해야 해야 했으며 그러한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너무 큰 어려움이 된다고 하였다.

영아들과 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아 뿐 아니라 부모와 밀착하여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실수하면 어쩌나, 서툰 모습이 보여지면 어쩌나 싶어서 불안했어요. 특히 어린이집 생활전반에 대해 질문하실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잘 못 이야기하면 신뢰를 쌓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2014년 1월 9일, B교사 면담)

아침에 등원해서 영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제가 옆에 있는데도 경력 있는 교사를 찾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입이라서 아직은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속상했어요. 약을 언제 먹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는데도 경력교사를 찾으니까 그때는 정말 울고 싶게 속상하고 자존감 떨어졌어요.

(2014년 1월 7일, C교사 면담)

이와 같이 영아반을 처음 경험하는 초임교사들은 적응프로그램 운영 내내 부모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부모들이 자신의 행동을 관

찰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교사의 요청을 무시하는 부모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초임교사의 지원 요구

1) 영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받기

어린이집에서 초기 적응을 시작하는 영아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긴장을 울음으로 표현하게 되고 초임교사들은 영아의 울음상황에서 교사의 적절한 반응과 역할에 대해 어려워하였다. 이러한 영아들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임교사들은 영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하였다.

즉, 영아가 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교사가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영아가 울음을 보이는지, 영아의 울음상황에서 보호자의 역할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문서를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모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영아의 개인 적인 습관이나 행동, 영아의 흥미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은 어린이집 입학 전 영아의 행동특성이나 생활습관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정(보호자)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내 교사교육을 통한 영아발달을 이해하면서 영아기는 기본신뢰감과 애착형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이

며,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초임교사들은 영아에 대한 사전정보와 영아발달특성을 고려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엄마(보호자)와 같은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초임교사들은 낯선 환경에서의 영아 초기 적응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아들이 보호자와 분리를 시작하면서 더 많이 울고 낮잠도 못자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이가 울 때 어떻게 달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안아주고 낮잠 잘 때는 업어서 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힘들긴 했지만 아이가 자꾸 우니까 울 때마다 안아주고 낮잠 잘 때 업어주면서 정말 엄마처럼 해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우는 시간도 차츰 줄어들고 낮잠 잘 때는 꼭 저를 찾기도 하면서 저한테 애착을 보이니 뿌듯했어요.

(2013년 11월 28일, D교사 면담)

영아들이 아침에 등원할 때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어요. 부모님들께 영아들이 울 때 어떻게 달래시는지 물어봤더니 안아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는 등 개별로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아들이 울 때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달랬어요. 조금씩 교사와 친해지면서 교사에게 안겨 엄마한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오면 엄마는 없지만 엄마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2014년 1월 23일, A교사 면담)

적응기간 2주 내내 아빠한테 매달려 울던 아이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등원하면서 저한테 달려와 안기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안그러는데 저한테만 꼭 안기더라고요. 적응기간동안 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안아주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 방법대로 했는데 그게 통했는지 아빠와 울지 않고 헤어질 수 있을만큼 저에게 애착을 보여줘서 정말 기분 좋았어요.

(2014년 1월 27일, H교사 면담)

면담사례에서 보듯이 영아들은 보호자와 헤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며 우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이 우는 상황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고, 영아들이 울음을 보일 때 가정에서 보호자는 어떤 반응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수첩, 전화통화, 등하원시 비형식적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안아주거나 업어주기, 노래불러주기 등 영아의 울음상황에 대처하는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었다. 초임교사들은 적응기간동안 울음이 끊이지 않았던 영아들이 교사와 특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영아들에게 교사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해하였다. 또한 영아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알게 엄마(보호자)의 역할과 보살핌의 의미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2) 초기 적응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시작하면서 영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 즉 보호자와 교사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영아의 적응을 돕기 위한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 교사의 안내가 필요하지만 초임교사들은 어떻게 대화를 시도해야하는지, 교사의 안내에 보호자가 기분나빠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의 지원 요구로 초임교사들은 어린이집 내 선배교사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거나 부모 상담기법,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련한 서적을 찾아 연구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영아 뿐 아니라 부모도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해야함을 인식

하고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일과 및 놀이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황에 따른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면 꼭 먼저 손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영아와 함께 등원하는 보호자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교실로 들어오도록 했어요. 또 영아가 교실에서 놀이를 하는 동안 보호자들은 주임선생님과 어린이집 하루일과 및 일과에 따른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AT를 하셨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오시면 뭘해야 할지 감을 잡으시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주임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한 상태라서 저도 얘기하기가 한결 쉬웠어요. 부모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시니까 영아들도 훨씬 더 적응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2013년 11월 5일, E교사 면담)

아이들과 보호자가 함께 오전간식을 먹는 날이었어요. 아이들 손도 씻겨야 하고 간식배식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옆반 선생님이 부모님들께 부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색함을 무릅쓰고 부모님들께 아이들 손 씻고 교실로 들어와 앉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제 말대로 움직여주셨어요.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니 그 다음엔 부탁하는 것도 좀 쉬워졌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대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배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조언대로 했더니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동안 왜 고민했나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편했어요.

(2014년 1월 15일, F교사 면담)

위의 면담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영아 뿐 아니라 보호자도 어린이집의 생활과 일과에 대한 따른 안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초임교사들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른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는지 몰라 어색해하고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초기 적응과 관련한 부모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배교사들의 조언을 통해 교사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호자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부모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에서 영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기를 희망하였다.

아침 등원할 때 엄마들은 그래도 영아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아빠들은 인사도 않고 그냥 가시려는 분들이 많았어요. 책에서 보니 아빠들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이가 우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영아와 함께 먼저 다가가 “아빠, 다녀오세요. 저도 안 울고 재미있게 놀면서 기다릴게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짧지만 그래도 인사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아빠들도 저처럼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신다는 걸 알고 나니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쓰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14년 1월 24일, C교사 면담)

초임교사들은 영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보호자의 역할 중 하나로 영아와 보호자가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보호자에 따라 영아가 울지 않게 하기 위해 몰래 도망치듯이 가려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초기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보호자는 영아와 헤어질 때 반드시 인사를 나누도록 사전 안내를 하였지만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있어 초임교사들은 이에 따른 개별적인 안내가 더 필요함을 인식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3) 동료교사의 조언과 모델링

영아들은 유아들처럼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아들은 꼬집기, 물기, 때리기, 밀기 등 신체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다. 이에 초임교사들은 영아들에게서 보여지는 물기, 꼬집기, 때리기 등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당황하고 적절한 지도방법을 몰라 힘들어하였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은 교사회의시간을 통해 영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도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고 하였다. 논의를 통해 선배교사들은 일관된 태도보이기, 다툼 상황은 미연에 방지하기, 교사가 모델링 보여주기 등의 의견으로 초임교사의 역할을 조언해 주었다고 하였다. 즉, 영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도는 담임교사 뿐 아니라 어린이집 내 모든 교사가 일관된 태도를 보이도록 협의가 이루어져 함께 지도해나갔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은 교실 내에서 지켜야할 약속에 대해 영아들에게 소개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임을 반복하여 안내하였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 다툼 상황은 미리 파악하여 예방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였다. 또 놀이상황에서 교사가 긍정적인 모델링을 보여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모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보니 물고 때리고 꼬집고.. 친구들을 밀면서 놀이하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또래보다 덩치가 크다보니 그 아이가 밀면 다른 아이들은 바닥으로 그냥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도 해보고 혼도 내봤는데 계속 했어요. 교사회의 때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안 되면 항상 안 된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친구들을 밀면 안 된다는 걸 안내해주려고 “꼭꼭 약속해” 노랫말을 바꿔 친구를 미는 것, 때리는 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알려줬어요. 그 아이가 친구들 밀러

고 하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안 돼!” 이야기하고 “꼭꼭 약속해” 노래를 반복적으로 불러줬는데 어느 날부터 안 밀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안아줬어요.

(2014년 1월 7일, B교사 면담)

○○이와 □□이가 쌓기 영역에서 벽돌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이도 쌓기 놀이를 하다가 블록이 모자랐는지 옆에 있는 ○○이 블록을 말없이 가져오려고 했어요. 교사가 교구장에 있는 작은 벽돌블록을 제시해주면서 “◇◇야~ 이걸로 하는 건 어때? ○○이 블록을 가져오면 ○○이가 많이 속상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자 처음에는 ◇◇이가 들어주지 않더니 교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자 ◇◇이가 들어주었어요. ◇◇이가 벽돌블록놀이를 좋아해서 매일 일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가 미리 얘기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음 평소처럼 친구들 때리면서 벽돌블록은 다 망가뜨렸을꺼예요.

(2014년 1월 13일, D교사 면담)

영아들과 역할 영역에서 음식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멀찌감치 떨어져있던 △△이도 같이 하고 싶었던지 다가오더니 차려놓은 음식들을 먹는 시늉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차리고 있는 ◎◎이가 △△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가 ◎◎이 팔을 물려고 했어요. 교사가 얼른 다가가 무는 행동을 막았지만 그 순간 정말 아찔했어요. 평소에 △△이가 친구들을 잘 무는 편이어서 아이들이 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놀이를 할 때 교사가 의도적으로 △△이를 놀이에 참여시켰는데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도 △△이를 놀이에 초대하기도 하면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이의 물기 행동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4년 1월 23일, H교사 면담)

위의 사례와 같이 영아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기, 꼬집기, 때리기 등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때 초입

교사들은 영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노력하였지만, 영아의 행동은 바로 수정되지 않아 힘들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였고, 어린이집 교사회의를 통해 선배교사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교사회의를 통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규칙 제시하기, 다툼 상황은 미연에 방지하기, 교사가 모델링 보여주기 등의 방법이 논의되었고, 논의된 내용을 상황에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영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관된 교사의 태도를 통해 영아들도 스스로 규칙을 이해하고 자기통제를 배울 수 있으며, 다툼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영아들간 갈등상황의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교사의 긍정적인 모델링으로 영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초임교사들은 영아 적응 기간 동안 동료교사나 선배교사들의 조언과 토론, 교수 모델링을 통해 영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자연스럽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며 영아의 적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반 초임교사들이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지원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영아반 초임교사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적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영아반 교실을 참여관찰 하였으며, 교육계획안과 어린이집 적응프로그램 자료 및 가정통신문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면담 전사본과 현장노트를 반복하여 읽고 분류하여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해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동료 질적 연구자와 전문가 1인 및 내부자 검증 절차를 거쳐 자료 분석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초임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임교사들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영아의 울음으로 인한 어려움, 부모나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서의 생활과 소통으로 인한 어려움, 동시다발적인 상황의 발생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아 생활지도로 인한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반 초임교사들은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및 보호자와의 분리불안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울음으로 보내는 영아와 부모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영아들을 달래고 안정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우는 영아들을 달래면서 흥미로운 놀잇감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영아들의 울음에 교사로서 적절한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보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류경(2000)은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에 대한 영아들의 행동특징으로 언어적·신체적 저항, 등원거부, 수면불안, 울음과 칭얼댐, 이유 없는 아픔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우현경·홍용희(1998)은 규칙과 일과를 예측하지 못해서 불안과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렇듯 영아는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영아들이 많으므로, 영아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기까지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Ainsworth와 Bell(1970)은 교사의 민감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영아의 요구에 대해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영아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며 영아가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게 한다고 하였다(심현정, 2002). 즉 교사는 영아의 초기 적응기간동안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언어적 상호작용을 격려함으로써 자신의 바른 감정표현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정은숙(2010)은 교사에게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한 영아는 교실의 사회적 규칙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사의 제안을 수용하는데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영아기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시기인만큼 영아반 교사는 영아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아들의 적응을 돕도록 노력하며 영아가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안정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영아반 초임교사들은 하루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손 씻기, 양치질 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지도하기, 코 닦기, 변기 사용하기 등 영아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발생한다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함으로써 초임교사들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이 되고 있었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배변, 식사, 낮잠 등의 일상생활지도를 하면서 영아의 특성상 언어적 지도가 아닌 직접 행동을 통한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들은 육체적인 피곤에 힘들어하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내 다양한 상황들에 어려워하였다. 조혜진(2007)은 영아의 발달특성상 직접적으로 일일이 도움을 주어야하는 업무적 특성에서 오는 육체·정신적 피로, 유아반 위주의 교육지원과 물리적 환경, 교재교구 부족, 교사 1인의 담임체제 등의 열악한 보육환경 등이 영아 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양지영(2007)은 보살핌의 행위가 주가 되는 영아반 교사의 역할에서 오는 갈등과 혼란이 영아 교사들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완희(2004)는 영아반을 담당하게 되는 초임교사일 경우 양육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미숙함과 보살핌에 대한 역할에 혼돈을 겪기 때문에 교직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다.

영아반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임교사들은 영아 돌봄에 대한 경험과 영아 발달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보살핌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초임교사들의 보살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영아를 보육하는 일은 별다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는 인식 때문에 보살핌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영아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하며 영아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보살핌에 대한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황경애·김현주, 2005). 구체적으로 양지영(2007)은 미혼 초임교사는 보살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찾아야 한

다고 하였으며, 이완희와 박찬옥(2005)은 보살핌을 실천하는 영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지현(2006)은 영아보육에서의 보살핌은 그 자체가 교육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한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곧 보살핌은 가르침에 대한 행위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영아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보살피는 행위 자체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아 돌봄에 대한 경험(육아경험 포함)이 없는 미혼교사일 경우에는 기저귀 갈기, 배변교육 등을 사전 실습·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영아반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임교사들은 보호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부모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해 나가야 하는지를 몰라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초기 적응프로그램 과정에서 보호자는 영아와 함께 등원하여 교실에 일정 시간동안 머무르며 함께 생활하거나 영아들의 놀이를 지켜보는 등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 때 영아반을 처음 경험하는 초임교사들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보호자가 교사의 행동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교사로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까봐 걱정하며 자신감이 상실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영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 안내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이는 초임교사가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미숙함으로 인한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대상이 영아반 초임교사임을 고려해 볼 때, 변화나 개인차가 큰 영아의 발달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 스스로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전문성을 길러 보호자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연숙, 2008)는 점에서 볼 때 초임교사 스스

로가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을 잘 관찰하여 부모와 소통해 나갈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초임교사의 지원 요구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임교사들은 위와 같은 어려움의 지원 요구로 영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받기, 초기 적응프로그램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동료교사의 조언과 모델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첫째, 초임교사들은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받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아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느끼는 불안을 울음으로 표현할 때 부모들은 어떤 방법으로 영아를 달랠는지, 영아가 좋아하거나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이나 놀잇감 등 가정에서의 영아 행동특성과 생활습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영아들의 적응은 기질(김난영, 2000; 허정숙, 2008; 전현주, 2011)과 어머니와 관계(이희영, 2001), 이전의 어린이집 경험(이혜숙, 2007) 및 양육태도(장혜정, 2003)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교사는 영아의 생활습관과 발달과정,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의 성격 특징 등에 대해 상세히 제공받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영아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이전에 담임교사와 부모의 만남을 통해 영아의 특성과 부모의 양육과정을 상세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초임교사들은 초기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이 강화될 것을 요구하였다.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영아의 적

용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져야 할 과업인 만큼 영아가 적응할 때까지 부모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들은 교실 안에서 영아가 울지 않거나 놀이에 조금 집중하면 적응이 끝난 것이라 여겨 스스럼없이 교실을 빠져 나가거나 부모들끼리 수다를 떨어 오히려 영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아가 부모와 친밀할수록 어린이집에 적응도가 높다(이희영, 2001)점에서 볼 때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부모가 영아들에게 낯선 환경인 어린이집에서도 친밀하게 놀이하고 상호작용해 줌으로써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부모들에게 적응 프로그램을 왜 해야 하는지,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서 부모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부모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영아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초임교사들은 영아의 부적절한 행동 지도에 대해 동료교사의 조언과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초임교사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홍석흠(2004)의 연구에서 보면 초임교사는 최초 교직생활 1년에 해당하는 ‘생존기’ 시기로서 이때는 교육현장에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원활히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생존기 교사들은 지원, 이해, 격려, 확신, 위로 등 심리적인 안정 뿐 아니라 교실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요하며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원장, 선배교사 혹은 프로그램 보조자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은 선배교사의 지원에 따라 영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대하면서 긍정적인 모델링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들은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껴 울음을 나타내는데, 영아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인식하고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 교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해 초임교사는 교직 전 영아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영아들이 어린이집 입학 전 가정에서의 생활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영아의 울음상황에 엄마와 같은 보살핌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초임교사들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어린이집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감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부모와의 소통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술을 습득하며, 보호자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초임교사들은 영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교직 전 교사연수나 교육에 참여하여 영아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지도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급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영아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는 교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화(2013). 부모-영아 애착, 부모-교사 협력, 그리고 교사-영아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승주(2003).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2세 영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주영(2003). 한 사립유치원 초임교사의 교직생활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구수연(2005).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귀옥(2000).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난영(2000).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배, 권중돈(2005).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학지사.
- 김소희(2006). 영아 초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실태 및 교사의 인식도 조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숙(2008).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대한 실행연구 : 20~40개월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0).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아(2004). 교사-유아 애착안정성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수(2008). 만1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숙(2008).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대한 실행연구.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숙(2010).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11).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의 개별 실시에서 나타난 영아의 적응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2009).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영아 초기적응 지도실태. **교육과학연구**, 40(2), 131-157.
- 남주현(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경(2000).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정의 영아행동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준(1992).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초기 교직 사회화. **충북대 교육개발논총**, (12), 1-30
- 박미자(2009). 영아의 초기적응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연구 : -안산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빈, 김은심, 유선희(2010). 영아반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 **변형영유아 교육연구**, 4(2), 65-87.
- 박정화(2014).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영아-어머니, 영아-교사 관계 탐색.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시민(1988). 사회학 개론. 서울: 박영사.
- 보건복지부(2009). **2010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보건복지부.
- 삼성복지재단(2006). **삼성어린이집 영아 프로그램 만1세**. 서울: 다음세대.
- 삼성복지재단(2006). **삼성어린이집 영아 프로그램 만2세**. 서울: 다음세대.
- 소재진(2007).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을 위한 교사의 지도방법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주영(2011).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관한 실험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현정(2003). 영아의 새로운 환경의 적응 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희, 김명희(2006). 교사의 애착유형, 교사-유아의 관계와 유아의 적응. **생활과학연구**, 11, 134-149.
- 양숙경(2010).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 관계가 만1-2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주(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영아교사의 애착형성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지영(2007). 영아반 미혼초임교사의 역할과 갈등.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은, 박경자(2002).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16(1), 1-9
- 우현경 · 홍용희(1998).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과학연구**, 27, 29-50.
- 유현숙(2006).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 태도 및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선(2013). 영아의 기질과 교사-영아관계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2000).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통일논총, 18(1), 3-32.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 · 임영심(2006). 18~22개월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영아교사의 역할. 유아교육논집, 10(1), 55-78.
- 이동영(2009). 어린이집 영아의 초기적응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지도방법.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2010). 영아보육과정. 서울: 정민사.
- 이명주(2010). 교사-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재원경험에 따른 만2세 영아의 놀이성과 어린이집 적응.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희(2010). 어머니 양육태도 및 영아의 개인변인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주(2008).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프로그램 실태 및 교사의 인식.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희(2004). 영아반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완희 · 박찬욱(2005). 2세 영아반 초임교사의 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 유아교육학논집, 9(3), 5-30.
- 이은경(2005).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초기 적응프로그램 실시현황.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2012). 영아반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순(2010). 보육교사의 신념과 보육교사 : 영아 상호작용 및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선(1995).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2, 111-124.
- 이희영(2001).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유치원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명희(2008). 초기적응과정에 대한 영아 사례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8(2), 73-103.
- 장혜정(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유치원 초기 적응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주, 권경숙(2012). 학기 중 입학하는 영아들의 초기 적응과정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 19(1), 533-558.
- 정은숙(2010). M어린이집 만2세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2007).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논집**, 11(2), 237-262.
- 채영란, 박희숙, 김희정(2008).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 및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2), 41-67.
- 최지현(2011).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 탐색.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선(2013). 12~14개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란영(2011).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맹화(2013).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서옥(2000).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만2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상관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inshaw, R. P. (1942). The concept of adjustment and the problem of norms, *Psychological Review*, 49, 284-292
- Howes & Hamilton(1993).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care: Changes in teachers and in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Children Reserch Quarterly*, 8, 15-32
- Lazarus, R. S.(1976). Patterns of adjustment. New-York: McGraw-Hill
- Paul Eggen & Don Karchak(2011). **교육심리학**(신종호, 김동민, 김정섭, 김종백, 도승이, 김지현, 서영석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99출판)
- Shaffer, D. R. (2005) **발달심리학**(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2 출판)
- 보육통계. 2008.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통계. 2013. 보건복지부

ABSTRACT

A Study on the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of Beginning
Teachers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Lee Jae-Soo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difficulties beginning teachers were experiencing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at a childcare center and what support needs they had to overcome them.

The study se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 1) What difficulties do beginning teacher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 2) What support needs do they have to overcome thos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The subjects include eight beginning teachers that had an experience with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or were running one currently.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m four times from October 10, 2013 to February 18, 2014 with each interview lasting 40~60 minutes. The investigator also did participant observation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a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and analyzed data by repeatedly reading, classifying, and categorizing the interview transcripts and field notes collected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by th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difficulties that beginning teachers were experiencing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and found that their difficulties were categorized into infants that began a life at a childcare center with crying, development of multiple simultaneous situations, repeated life instructions, and lack of confidence in communication with parents(caregivers) in the same space. The

beginning teachers had a difficult time, having no knowledge about the proper reactions and roles for infants that would spend most of the day on crying due to fear for strange environments and people and separation anxiety from their caregivers.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caregivers would stay with their infants and participate in play in the classroom, which caused a sense of burden and inconvenience to beginning teachers. They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not knowing how to deal with the multiple simultaneous, repeating improper acts of infants.

Second, beginning teachers collected information about how to instruct at home and attempted to be mother-like teachers in order to overcom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running an early adjustment program for infants. They also tried to master how to converse with caregivers naturally and thus maintain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them based on advice from their predecessors and research on concerned books. They mentioned a need for careful guidance and advice from their predecessors, stating that they were able to overcome difficulties through consistent attitudes and modeling toward infants proposed by them. They said that parent education at a childcare center should be a priority to promote their understanding of an early adjustment

program and raised a need for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for teachers to make the first attempt at conversations with parents and interact with them actively with confidence.